

전 국민 잠시 멈춤... 24일~1월 3일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부, 연말 연시 특별방역 대책
식당·카페 5인 이상 이용시 과태료
광주·전남, 밤 9시 이후 활동 금지

전국을 대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도 방역 수칙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의 이번 방역대책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동시 적용되며, 각 자치단체에선 정부 대책보다 완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 (관련기사 2·3·6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시·도는 정부 특별대책에 맞춰 강화된 방역 대책을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권고 조치다. 5인 이상 각종 사적모임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고, 식당·카페에 한해서는 강제 조치를 적용해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면회는 지속해서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다.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진단검사를 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이용업 광주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지역 내 요양원과 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환자,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 있는 의료진, 종사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면서 "지금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마뽀거리면서 끝내달라"며 농촌지역도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훨씬 긴 시간을 더 큰 고통 속에 보내야 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시·도는 종교시설에서도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토록 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 식당·카페는 밤 9시(현재는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은 금지된다. 여기서 입주는 최대 300만원,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화관,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도 현



썰렁한 광주의 밤거리
광주와 전남에서도 오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식당, 카페 등에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을 허용하는 연말특별방역 조치가 실시된다. 22일 오후 술집 등이 즐비한 광주 동구 광산동 아시아음식문화거리가 다니는 이들이 없어 썰렁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재 밤 10시 이후에서 밤 9시 이후로 운영 중단 시점이 당겨졌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함께 손님 모으기 행사,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또 해맞이, 해넘이 행사는 금지되며 관광 명소, 무등산 등 국공립공원은 폐쇄된다. 광주시는 1월 1일 자정 민주의 종 타종식, 무등산 떡국 나눔 행사도 취소했다. 시·도는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 운영 제한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요즘 코로나 양상은 감염속도가 대단히 빨라 조금만 방심하면 집단으로 순식간에 퍼진다"면서 "차분하고 조용한 연말 보내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상무지구에 삶·일·여가 '도심융합특구' 조성

판교 제2테크노밸리 모델 적용

광주시가 상무지구 일원을 삶과 일, 여가를 연계해 복합 인프라를 갖춘 특구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일원 85만㎡에 대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제안서가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 심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광역시 구도심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모델을 적용해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복합혁신공간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국토부, 과기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먼저 조성한 뒤 창업·벤처기업 유치 등에 성공한 개발 모델이다.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은 미래 성장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혁신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가장 먼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상무지구 일원에 '창업·성장·벤처·소통·교류의 공간'과 '혁신기업·글로벌 공간'을 조성한다. 창업

·성장·벤처·소통·교류의 공간은 공공이 이끄는 창조경제 생태계 집적 공간과 창업기업 성장지원, 벤처, 스타트업 육성 공간으로 구성된다.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센터, SW드림센터, ICT융합센터, 글로벌BIZ센터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혁신기업·글로벌공간에는 혁신형 기업의 미래 기술 선도 공간, 수도권 선도기업 이전 및 창업성

공 기업 등 엔지니어링 입주 공간, 선후배 기업의 멘토링, 컨설팅, 기술트렌드, 오픈 아카데미 공유 공간 등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해당 구역 토지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23일자로 마북동 586-4번지 일원 사유지 34만3817㎡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尹정직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내일 속행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했다. 법원은 그러나 양측 입장이 크게 맞서자 오는 24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2시간을 약간 넘어 종료됐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용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욱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연합뉴스

“병원 가기 무서워요”
코로나 공포 ▶6면

구매 콘슨은 20대 ▶14면

2020 문화 결산 - 공연
관람 아닌 시청 ▶16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힘내라 전라남도, 으랏차차 우리 농수축산물”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검색 남도장터

남도장터에서 “남도 맛”을 잡았다

“내 손안의 장터”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무료 전화 070.7816.8510

검색창에 남도장터 검색

남도장터 농수축산물 주문 방법

다양한 소식도 만나보고, 채팅상담으로 쉽고 편리한 쇼핑하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 홈에서 채널 추가

“남도장터”는 전라남도 대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www.jnmall.kr)입니다.